

대한민국 도로사이클 국가대표팀, 강진서 담금질

선수단 45명 다음 달 2일까지 강진서 전지훈련
최기락 감독 "정비된 도로·따뜻한 날씨 최적"

한국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선수단(감독 최기락)이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남 강진군을 찾아 전지훈련에 들어갔다.

선수 37명과 협회 임원 등 45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지원 받아 강진군 일원 도로와 종합운동장 내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몸만들기 훈련을 소화한다.

최기락 감독은 "강진군은 정비가 잘된 도로 조건과 따뜻한 날씨가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정성과 맛이 어우러진 강진 음식은 전국 최고

라고 말하고 강진만 일대 해안을 따라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일품이다"고 칭찬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국가대표 3명이 포함된 사이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이라서 사이클에 필요한 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7일 도로훈련에 나서는 선수단에 재배 농가들이 응원의 뜻으로 보내준 강진의 특산품인 장미를 선물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만족할만한 훈련성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지난 25일부터 전남 강진군에서 전지 훈련에 들어간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선수 37명의 선수들이 남녀부로 나뉘어 도로훈련을 하고 있다.

한편 선수단은 1인 1실의 숙박과 방역은 물론 훈련 참가자 전원의 코로나 진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매일 발열 체크와 훈련 시간 외에는 강진-김영일 기자



K리그, 내달 27일 전북-서울 킥오프

2021시즌 K리그, 내달 27일 전북-서울 킥오프

2021시즌 K리그1(1부리그)이 내달 27일 디펜딩챔피언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개막전으로 막을 올린다.

프로축구연맹은 28일 2021시즌 K리그1 정규 33라운드까지의 일정을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2월27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서울의 경기다.

전북과 서울은 각각 김상식, 박진섭 감독이 새롭게 부임해 달라진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리그 5연패에 도전하는 전북은 최우수선수(MVP) 손준호와 베테랑 이득국이 각각 중국 진출과 은퇴로 공백이 생겼지만 일류첸코, 류재문, 최영준, 김승태 등을 영입했다.

서울은 주장 기성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팀컬러가 기대된다. 나상호, 박정빈 등 영입 선수들의 활약도 관심사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에는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수

원FC가 만난다. 28일에는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 삼성과 광주FC의 경기가 열린다.

이어 공휴일인 3월1일에는 흥분보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울산 현대와 강원FC가 대결한다. 성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도 대결한다.

K리그1 승격에 성공한 제주의 홈 개막전은 3월6일 전북전, 수원FC의 홈 개막전은 3월10일 수원 삼성전이다. 수원FC와 수원 삼성의 첫 '수원 더비'다.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우승을 다졌던 전북과 울산은 5월2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첫 대결을 갖는다.

수원 삼성과 서울의 첫 '슈퍼매치'는 3월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과 울산의 첫 '동해안 더비'는 3월13일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다.

뉴스스

전주원, 여자농구 올림픽대표팀 감독 선임



전주원 아산 우리은행 코치(사진 왼쪽)와 이미선 용인 삼성생명 코치. (사진 = WKBL 제공)

여자농구 전주원 아산 우리은행 코치가 도쿄올림픽에서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7일 "결산이 사회에서 전주원 감독, 이미선 코치를 2020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국가대표

팀 감독과 코치로 각각 선임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레전드인 전주원 감독과 이미선 코치의 선임으로 한국 농구는 역사상 첫 여성 사령탑 탄생에 앞선다"고 했다.

올림픽 역사상 단체 구기종목에서 한국 여성 지도자가 사령탑에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캐나다 국적의 세라 머리 감독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이끌었다.

선임되고 출신인 전주원 감독은 1991년 농구대잔치 신인상으로 화려하게 성인 무대에 데뷔해 베스트5와 어시스트 1위를 거의 놓치지 않았다.

여자농구에 획을 그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97년과 1999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한국 수영 최초' 황선우, 세계주니어기록 보유자 됐다

국제수영연맹, 자유형 200m 1분45초92 기록 인정

한국 수영 선수 최초의 세계기록 보유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제2의 박태환'으로 불리는 황선우(18·서울체고)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FINA)은 전남 대한수영연맹에 황선우의 자유형 200m 기록을 세계주니어기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황선우는 지난해 11월 김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역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5초92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는 엘리야 위닝튼(호주)의 당시 주니어세계기록인 1

분46초13보다 0.21초 빠른 기록이다.

대한수영연맹은 골장 공인을 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기록 달성과 동시에 이메일로 먼저 FINA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해 넘겼다. 황선우의 도핑 테스트 결과지도 늦지 않게 FINA의 손에 들어갔다.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은 FINA는 심의를 거쳐 황선우의 기록을 공식 인정했다. 홈페이지 자유형 200m 세계주니어기록 보유자도 황선우로 빠르게 바꿨다.

연령대와 종목, 코스 등을 통틀어 한



황선우(왼쪽)와 서울체고 이병호 감독. (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국 수영 선수가 세계기록 보유자 등 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태환도 해내지 못한 일을 황선우가 해냈다.

FINA는 곧 정식 인증서를 우편으로 황선우에게 보낼 계획이다.

KIA, 광주서 스프링캠프 돌입...선수단 55명 참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1시즌을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KIA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19일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스프링캠프는 지난 1991년(제주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내 훈련으로, 맷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8명, 선수단 37명 등 55명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투수 17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신인 가운데 투수 이의리와 박건우, 장민기, 이승재가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들은 체력 및 기술 훈련과 전술 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퓨처스 선수단도 2월1일부터 3월19일까지 이병호 총괄코치의 지휘 아래

KIA 챌린저스 필드(함평)에 스프링캠프를 차린다. 코칭스태프 18명,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4명 등 57명이 참가한다.

한편 KIA는 추위와 악천후 속에서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게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KIA 챌린저스필드에 방한 및 방풍 시설을 마련하는 등 국내 스프링캠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뉴스스

KPGA 윈터투어, 7년 만에 부활...군산서 개최

군산컨트리클럽 (사진 = KPGA 제공)

2021 KPGA 윈터투어 개막전 '2021 KPGA 윈터투어 1회 대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컨트리클럽 전주, 익산코스(파71·7143야드)에서 개최된다.

KPGA가 주최하고 ㈜한국프로골프투어가 주관하는 '2021 KPGA 윈터투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모습을 보이는 윈터투어 시리즈로 1회 대회부터 5회 대회까지 총 5개 대회가 진행된다. 각 대회 총상금은 4000만원, 우승상금은 800만원이

다. 윈터투어는 KPGA 회원과 아마추어 등 모든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다.

이번 1차 대회에는 7년 전 우승자인 이동하(39)를 비롯해 2018년 KPGA 코리아투어 NS홀스윙 군산 CC 전복오픈 우승자 고석완(26), 2019년 스티븐투어서 3승 중 2승을 이 대회 코스에서 올린 박승(25) 등이 출전한다.

한편,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 대회는 모두 무관중으로 열리며, 대회 관계자를 비롯한 출전 선수 전원은 동선 분리, 대회장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은 물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PGA 이우진 운영국장은 "세계적 절 겨울에 국내서 진행되는 만큼 기상 조건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정부 지침 및 방역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뉴스스

군산컨트리클럽 (사진 = KPGA 제공)



시간차 시도하는 김정호(오른쪽 두 번째).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KB손해보험 김정호 "지금부터는 전쟁"

5R 2위 도약...선두와 2점차

KB손해보험 레프트 공격수 김정호는 남은 시즌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볼배구'를 향한 KB손해보험 선수들의 열망은 그만큼 크다.

KB손해보험은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볼배구'를 경험하지 못한 팀이다. 이들은 10년 전인 2010~2011시즌 준플레이오프를 끝으로 포스트시즌에서 자취를 감췄다.

긴 암흑기는 어쩌면 올해 막을 내릴 수도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KB손해보험은 27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전에서 세트스코어 3-1(25-23 17-25 25-20 25-17)로 이겼다.

5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KB손해보험은 승점 45(15승10패)로 한 경기를 덜 치른 OK금융그룹(승점 42·16승8패)을 밀어내고 2위로 도약했다. 선두 대한항공(승점 47·17승8패)과는 2점차다.

지난 수년 간 KB손해보험은 초반 부진한 출발을 보이다가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된 막판 반등하는 흐름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올 시즌 '괴물' 케이터를 앞세워 1라운드부터 치고 나가더니 막바지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V-리그 남자부 정규리그 1위팀은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고, 2위와 3위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3위와 4위가 맞붙는 준플레이오프는 두 팀의 정규리그 승점차가 3 이내일 때만 진행된다. 확실히 포스트시즌 티켓을 거머쥐려면 적어도 3위는 차지해야 한다.

경쟁은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5개팀으로 압축됐다. 대한항공과 5위 한국전력(승점 38·12승12패)의 격차가 9점에 불과해 3위 진입 싸움은 막판까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캐피탈전이 끝난 뒤 만난 김정호는 "현재 순위표를 보면 잠깐의 방심으로 5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매경기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야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2017~2018시즌 삼성화재를 통해 V-리그에 뛰어든 김정호는 이듬해 KB손해보험으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에는 주전 도약으로 경험을 쌓더니 올해 기량을 만개했다. 리시브 후 날아올라 힘차게 내리 쏘는 시간차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김정호는 "예전에는 불안했지만 지난해 폴시즌을 소화하다보니 이번 시즌에는 불안감이 크지 않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트에 서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책임감이 커졌다. 김정호는 "케이터가 50~60%의 점유율을 찍는데 반대쪽에서 20% 밖에 못 때려 미안하다. 20% 밖에 안 때리니 더욱 책임감을 갖고 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1차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김정호는 감춰왔던 개인적인 바람을 살짝 공개했다. 김정호는 "배구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트릴리크라운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뉴스스